

# 러시아어 ‘у’ 소유구문 연구

이 인 영\*

## 1. 서론

어느 언어나 소유를 표현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소유는 특정한 어휘나 격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고 특정한 구문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많은 언어들이 소유표현을 위해 하나 이상의 수단을 가지며 그러할 경우 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의미-화용적, 통사적, 형태적 요인들--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러시아어의 경우 소유표현 수단으로는 진치사 у + 생격 명사구를 동반하는 есть/제로구문, иметь 구문, 그리고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생격, 여격 등이 사용된다.

- (1) У него есть книга. / У него книга. ‘그(에게)는 책이 있다.’
- (2) Он имеет право говорить. ‘그는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3) Это ее/Машина книга. ‘이것은 그녀의(소유대명사)/마사의(소유형용사) 책이다.’
- (4) Сестра Ивана красивая. ‘이반의(생격) 여동생은 예쁘다.’
- (5) Он испортил мне платье. ‘그는 내(=내게(여격)) 옷을 망쳤다.’

위의 소유표현들 중 소유의 단언을 화행의 일차적 목표로 하는 경우는 (1)의 у 구문과 (2)의 иметь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및 소유 생격의 지시체는 구 차원에서 피소유물과 소유관계를 형성할 뿐 그것이 속하는 문장 자체는 소유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그 밖의 다른 것--정체 파악(예문 3)이나 자질 서술(예문 4) 등--을 단언하며, 소유 여격 (예문 5)의 경우에도 대상-객체와의 소유관계는 일차적 화행목표가 아니라 추론에 의해 이차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한편, 러시아어에서 иметь 구문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므로--4.1을 보라-- 실질적으로는 у 구문을 소유 단언의 주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주목할 점은 소유표현에 사용되는 형태들의 대부분이 소유가 아닌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소유 의미는 다른 의미와 병존하거나 다른 의미로부터 확산되어 얻어진다. 러시아어의 경우, 소유대명사인 *его, ее, их*는 3인칭대명사의 생격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며, *у* 소유구문은 존재구문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여격은 소유주 뿐 아니라 좀더 자주 수용자(Recipient)나 경험주(Experiencer)를 나타내며, 생격 또한 소유주 뿐 아니라 행위주나 피의체를 나타내기도 한다.<sup>1)</sup> *иметь*는 “취하다(take)”의 의미를 갖는 타동사(-имать)와 동일한 어근을 갖으며 그것으로부터 확산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형태가 소유의 의미만을 갖는 유일한 경우는 접미사 -ов나 -ин (드물게는, -овский, -ий)를 갖는 소유형용사인데 이것들은 매우 제한된 수의 활성화명사로부터 파생에 의해 조어되며 그 쓰임새와 의미도 소유 생격에 비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소유표현들 중 가장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2)</sup>

소유가 일반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좀더 원초적인 다른 개념들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와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Taylor 1996, Heine 1997 등을 보라). 소유 개념의 형성에 관여되는 개념으로는 존재 및 처소, 행위, 그리고 자질부가(Attribution)를 들 수 있다. *у* 소유구문은 존재 및 처소와, *иметь* 구문은 행위와,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및 소유 생격은 자질부가와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소유 여격은 어떤 경우에는 존재 개념과, 어떤 경우에는 행위 개념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4.3을 보라).

*у* 소유구문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소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규명해 가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у* 소유구문의 심층적 기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 및 처소성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근간으로 *есть*에 대한 논란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у* 소유구문과 다른 소유표현들--*иметь* 구문, 소유

1) ‘수용자’, ‘경험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주 (15)를 보라. 소유 생격을 사용한 “фотография Ивана”는 ‘이반이 소유하고 있는 사진’, ‘이반을 찍은 사진’, ‘이반이 찍은 사진’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2) 소유형용사의 예로, *отцов* ‘아버지의’, *Петин* ‘페차의’, *отцовский* ‘아버지의’, *лисий* ‘여우의’ 등을 보라. 소유형용사와 소유 생격의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각주 (16)을 보라.

여격 구문, 소유 생격 및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의 비교는 이러한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 2. y 소유구문과 처소성의 문제

HAVE가 소유 단언의 주된 표현인 서구어 중심의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유구문과 존재(혹은 처소)구문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언어 보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언어들에서도 소유와 존재(/처소)를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의 주류는 HAVE와 BE가 결코 독립적인 두 어휘가 아니며, 소유구문과 존재구문, 처소구문이 모두 동일한 심층구조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Bach 1967, Lyons 1967, Clark 1978, Christie 1970, Freeze 1992, Kondrashova 1996 등을 보라). 이러한 주장은 소유/존재표현에 BE를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러시아어에서는 소유의 단언이 주로 "PP [y + NP] + (BE) + NP"의 구문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PP[P + NP] + (BE) + NP"로 일반화시키면 존재구문의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소유구문은 암묵적으로 존재구문의 일부로 간주되어왔다. 최근 서구학계에서는 위에 언급한 동일 심층구조설이 보이는 형식적 추상주의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미의 은유적 확산 혹은 네트워크 등의 방법론을 통해 이 문제에 인지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Langacker 1995, Heine 1997, Voieikova 2000, Seiler 1982, Cienki 1995, Clancy 2001 등을 보라).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지만 위에 언급된 시도들은 모두 소유구문에서 처소성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어에서 y의 기본 의미가 '인접 공간'이라는 사실, 즉, 구체적 처소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6) Мы сидели у окна. '우리는 창문 옆에 앉아 있었다.'

y의 의미가 "인접 공간"(예 6)으로부터 소유(예 1)로 확산되는 점진적 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인접 공간은 그것이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소유하는 전형적인 물리적 공간--주로, 집이나 거주지, 신체--의 의미로 확대된다: “Он живет у Пети. ‘그는 페차네서 산다.’” 소유되는 공간이 전형적인 것이 아닐 경우 그것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해지면서 у 지시체와 물리적 공간간의 분리가 일어난다: “Он живет у Пети на заводе. ‘그는 페차네 공장에서 산다.’” 이러한 분리는 у 지시체와 물리적 공간간의 의미적 분리로 확대되어 물리적 공간이 더 이상 у 지시체의 소유공간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у 지시체는 물리적 공간과는 독립적인 독자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у 지시체는 상황과 관련한 추상적 공간--즉, 담화공간--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대상-객체는 (그것이 속해 있는 구체적 공간 뿐 아니라) у 지시체라는 추상적 공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결국 у 지시체의 피소유물로 인지된다.

얼핏 생각하면, у 소유구문과 존재구문간의 구조적 병행성은 명백해 보인다. 이 둘은 “처소 NP + (BE) + 대상 NP”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되 처소 NP의 생명성 여부에 따라 소유구문 및 존재구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대상 NP + (BE) + 처소 NP”의 구조를 갖는 경우에도 생명성 여부에 따라 소유-처소구문 및 처소구문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처소NP + (BE) + 대상NP	у Ивана есть машина.	В комнате есть самовар.
	‘이반(에게)는 자동차가 있다.’	‘방에는 사모바르가 있다.’
	소유구문	존재구문
대상NP + (BE) + 처소NP	Машина у Ивана.	Иван в Москве.
	‘자동차는 이반에게 있다.’	‘이반은 모스크바에 있다.’
	소유-처소구문	처소구문

이러한 논리를 통사적으로 접목시킨 Freeze(1992)는 위의 구문들이 모두 동일한 심층구조를 갖되 파생과정에서 위 두 구문과 아래 두 구문간에 차이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즉, 심층에서는 주어 위치([Spec, IP])는 비어있고 술어에 해당하는 PP가 NP와 P'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NP가 한정적이면 그것이

3) 이와 유사한 분류로 Clark(1978)을 보라. 아래 도표에 첨부된 예들의 우리말 번역에서도 “에게”와 “에”라는 조사의 차이로써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별하고 있음을 참고하라.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처소구문을 형성하고, NP가 비한정적이면 그것은 원 위치에 남는 대신 P'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존재/소유구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sup> (그에게서는 소유-처소구문과 처소구문이, 그리고 존재구문과 (BE) 소유구문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그의 제안에서처럼 존재/소유구문에서 P'가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면 대상 NP의 주어적 측면--주격과 일치--는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또한, 그의 제안을 따른다면, “У меня в деревне есть дача. ‘나는 시골에 별장이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У меня”와 “в деревне”라는 두 개의 P'가 나란히 두 개의 주어를 형성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하나의 P'를 형성한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 전자의 경우 한 문장이 하나의 주어를 갖는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후자의 경우 직접적 연관이 없는 두 성분을 하나의 결점(結點)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못하다.

Freeze 식 통사적 해결방법의 좀더 심각한 문제점은 존재/소유와 처소, 나아가서 자질부여간의 경계가 인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Машина у Ивана. ‘자동차는 이반에게 있다.’”와 같은 구문은 소유표현인 동시에 처소표현이라 할 수 있고, “У меня красивые глаза. ‘내게는 아름다운 눈이 있다.’”와 같은 구문은 소유와 자질부여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이 점에 대해서는 3.2를 보라--, 통사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중간적 의미들은 배제되고 전자는 처소구문으로, 후자는 소유구문으로 단순화되어진다.

“У меня в деревне есть дача.”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У меня”와 “в деревне”가 처소성이라는 자질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다. Freeze 식으로는 이 둘은 구문 상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은 통사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y 소유구문은 존재구문 위에 y 구가 부가되어 이루어지며 이때 y 구는 뒤따르는 존재구문 전체를 제한시키는 담화공간(Discourse Space, DS)으로 작용한다. 즉, 위 구문은 “DS[y меня] + ∃op[в деревне BE дач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op는 존재운용자(Existential Operator), BE는 есть의 심층형을 뜻한다). y 구는 뒤따르는 존재구문 내부의 구체적 처소--즉, “в деревне”--와 달리, 존재구문이 묘사하는 상황을 포괄하는 추상적 공간이다. 존재구문의 상황은 이 추상적 공간과 관련하여서만 담화적으로 유효

4) Kondrashova(1996)도 Freeze(1992)의 PP를 ∃P로 대치한 것 외에는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하다. 중립적 맥락의 경우 *y* 구가 문두에 나타나며 담화주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sup>5)</sup> 존재구문 내의 처소는 맥락적 유추가 가능하거나 명백할 경우 표층에서 생략될 수 있다. 예컨대, “*у меня есть самовар.* ‘나는 사모바르가 있다.’”는 “*у меня дома есть самовар.* ‘나는 집에 사모바르가 있다.’”로부터 “*дома*”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의 강점은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의 밀접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소유구문이 단순히 존재구문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존재가 단언되는 대상-객체는 담화공간으로 제시된 인물과 유관성을 갖는다는 조건하에서 존재가 단언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인물의 피소유물로 인식되게 된다. 다음 예들을 비교해 보자.

(7) a. *У меня сын работает на этом заводе.* ‘나는 아들이 이 공장에서 일해요.’

b. *Мой сын работает на этом заводе.* ‘내 아들은 이 공장에서 일해요.’

화자의 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술인 (7-b)와 달리, (7-a)는 아들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화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7-a)는 아들에 대한 진술을 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의 하부구조로 전환시킨다. (7-a)와 (7-b)는 동일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7-a)가 (7-b)로부터 소위 ‘소유주 상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sup>6)</sup> 뿐만 아니라, (7-a)에서 “*сын*”은 (7-b)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주어로 작용하므로 *y* 구가 문법적 주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음 또한 분명하다.

(7-a)와 같은 구문의 존재는 *y* 구문이 항상 소유를 단언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화자와 아들간의 소유관계는 화자가 단언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표가 아니다. 단언되는 것은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화자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화자와 아들간의 소유관계는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발화에 대해 *y* 지시체가 이와 유관한 담화공간으로 작용하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sup>7)</sup>

5) 우리말의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는*”이 담화주체로 작용하는 점과 비교해 보라. 이 문장의 “*코끼리는*”은 러시아어의 *y* 구에 상응한다.

6) 마찬가지로 이유로 해서, “*코끼리가 코가 길다.*”를 “*코끼리의 코가 길다.*”로부터 소유주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У меня болит голова.* ‘나는 머리가 아프다.’”도 (7-a)와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다만 머리는 *y* 지시체와 불가분의 소유관계에 놓이므로 \*“*Болит моя голова.* ‘내

이상을 볼 때, у 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확산 혹은 추상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인접 공간 > 소유되는 전형적 공간 > 담화공간

경우에 따라서는 위 단계들 중 어느 것이 사용된 것인지가 애매할 수 있다. “У Ивана умерла жена.”는 대개는 “이반은 아내가 죽었다.”로 해석되지만 드물게는 “이반네 (집)에서 (누군가의 혹은 화자의) 아내가 죽었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У Ивана”는 ‘담화공간’일 수도 있고 ‘소유되는 전형적 공간’일 수도 있다. Isačenko(1974)는 “Сейчас у Марковых грипп.”가 ‘지금 마르코프 부부는 감기에 걸렸다.(직역: 마르코프 부부(에게)는 감기가 있다)’와 ‘지금 마르코프네에서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다.(직역: 마르코프네 (집)에는 감기가 있다.)’의 두 의미를 갖는 점을 설명하면서 у 구가 전자에서는 ‘함축적 관련’의 의미(필자의 ‘담화공간’)를, 후자에서는 ‘처소적(адессиве/locative)’(필자의 ‘소유되는 전형적 공간’)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BE--즉, 전자에서는 계사 BE, 후자에서는 존재사 BE--가 사용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48면). *есть*가 사용되지 않은 제로구문을 과연 BE구문(의 변이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을 따른다면 “У Ивана умерла жена.”의 두 해석간의 차이는 동사 “умерла”의 동음이의적 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수긍하기 힘든 결론이 나온다. 필자의 견해로는 ‘마르코프 부부는 감기에 걸렸다.’라는 해석에도 존재적 의미는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는 구체적 처소가 (신체라는 너무 당연하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뿐이다. у 구를 ‘유관한 담화공간’으로 보게 되면 북부러시아 방언의 “Тут у в олков идено. ‘여기 늑대들이 갔다(과거분사 중성 피동형).’”와 같은 소위 무인칭 피동구문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이 구문은 현대 표준어의 “Волки шли. ‘늑대들이(주격) 갔다(복수 과거 동사).’”와 달리 걸어간 행위에 의한 결과적 상태의 존재를 “늑대들”이라는 담화공간 내에 위치시킨다. 엄격히 말해서, 이 구문은 “늑대들에게 걸어간 상태가 있다.”를 의미한다. 이 구문이 늑대들이 지나간 흔적--예컨대, 발자국--을 발견한 상황에서 가능함을 보라.

у의 담화공간적 기능은 “Он украл у меня часы. ‘그는 내게서 시계를 훔쳤

---

머리가 아프다.’”는 마치 화자와 분리된 머리가 아픈 것처럼 인식되어 불가능하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다.”와 같이 *y* 구가 탈격(Ablative)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설명해 준다.<sup>8)</sup> NK “그가 시계를 훔친” 것은 “나”라는 담화공간 내에서 유효하므로 “나”로부터 혹은 “나”의 시계를 훔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만, украсть ‘훔치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y* 구는 어휘부에서 동사의 하부자질화하면서 동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점만이 위의 경우들과 다를 뿐이다. спросить ‘묻다’, по-просить ‘부탁하다’, занять ‘빌리다’, требовать ‘요구하다’, узнать ‘알아내다’ 등도 украсть와 동일한 동사군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y* 소유구문이 처소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처소성이 결코 존재구문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존재구문의 처소는 대상이 존재하는 구체적, 물리적 공간을 지칭한다. *y* 소유구문은 기저에 존재구문을 포괄하므로 *y* 소유구문에도 구체적 처소가 포함되지만 이 구체적 처소는 *y* 지시체가 지칭하는 추상적 공간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y* 소유구문에는 담화적 처소와 존재적 처소가 병존한다. *y* 소유구문은 DS +  $\exists$ op[LOC (BE) NP]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y* 소유구문의 BE: есть와 제로

#### 3.1. BE의 분류

예문 (1)에서 보듯이, *y* 소유구문에서는 (존재구문과 마찬가지로) есть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 자리가 비어있을 수도 있다. 고대러시아어에서는 BE가 계사(Copula)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도 인칭과 수에 따른 활용형들이 사용되었었지만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이것들 중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3인칭 복수형 суть를 제외하면) 3인칭 단수형인 есть만이 남아 있으며 그것도 주로 존재적 의미로 제한되고 계사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북부의 일부 방언에서는 *e* 혹은 есть라는 고정된 형태가 모든 인칭에서 계사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언은 고대러시아어로부터 현대어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상태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러시아어의 BE는 심층에 존재한다고 볼 것인가, 아닌가?

8) Isačenko(1974, 46)에 의하면 인도유럽어에서 *y*의 원천이 되는 의미는 탈격이었으나 추후 처소적(Adessive) 의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역사적 과정은 불분명하다.



есть와 제로는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첫 작업으로 BE 분류의 한 전형적 사례를 예시적으로 분석해 보자. Evreinov(1973)는 BE를 일단 계사 BE와 존재사 BE로 구분하고, 계사 BE를 다시 자질부여, 분류, 정의, 단호한 주장, 동일화, 시간적 정렬이라는 하부유형들로, 그리고 존재사 BE를 존재, 배치, 소유, 처소의 하부유형들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존재'의 의미는 그의 '배치'에 해당하며, 그가 말하는 '존재'는 “Единороги есть. ‘일각수는 있다.’와 같은 소위 '존재론적 존재'를 지칭한다.)

이러한 식의 분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로는 BE의 한 표층 형태로 전제된다. 제로와 есть가 과거시제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며, 제로가 다른 언어들에서 BE 어휘에 상응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전제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예외 없이 수용되어지고 있다. 제로와 есть가 연계되어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사가 부재하는 모든 구문--예컨대, “Весна. ‘봄.’”과 같은 명사구문--이 과연 심층에 BE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재고가 요망된다.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는 접어두겠다.

이러한 식의 분류의 두 번째 특성은 맥락적 해석 의존성이다. 위의 분류에서 소유 BE라 함은 단순히 맥락에 의해서 소유적 해석을 갖는 BE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2장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배치(=필자의 '존재') BE로부터 독립적인 소유 BE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 분류의 세 번째 특징은 불연속성이다. 위 분류에서 BE는 일단 존재사 BE와 계사 BE로 나뉜다. 그러나 존재사 BE의 하부유형으로 분류된 처소 BE를 보면 과연 존재사와 계사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엄격히 말해서, 처소 BE는 계사적이되 그 안에 존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처소와 존재(Evreinov(1973)의 '배치')는 그 정의상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처소는 객체에 대해 서술하는 자질일 수 있다. “Саша дома? ‘사샤, 집에 있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Его нет дома. ‘그 애는 집에 없다.’”와 “Он не дома (, а в школе). ‘그 애는 집에 있지 않다. (학교에 있다.)’”라는 두 응답이 다 가능함을 보라.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 존재/소유구문--이 경우를 “약한 존재/소유구문이라 칭하겠다--도 есть가 사용된 경우와 달리 존재적 의미로부터 계사적 의미로의 경도를 보이는데--이 점에 대해서는 3.2를 보라--Evreinov(1973)는 '배치'(필자의 '존재')와 '소유'를 단순히 존재적 BE로 분류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 결론적으로, Freeze(1992)의 통사적 접근에서 그러했듯이 Evreinov (1973)의 나열식 분류에서도 중간적 해석은 배제되어진다.

이러한 점에서는 BE를 하나의 연속체로 간주하고 의미의 점진적 확산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예컨대, Clancy (2001)을 보라--이 좀더 나은 개선책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어떤 하부의미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라는 문제는 상당히 융통성을 갖게 되므로 소유적 의미가 존재적 의미로부터 은유적 확산을 통해 나타난다든지, 약한 존재/소유구문이나 처소구문의 경우 계사적 의미와 존재적 의미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현대 표준 러시아어에서 존재적 의미로부터 계사적 의미로의 이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한) 존재/소유구문 > 약한 존재/소유구문 > 처소-소유/처소구문 > 자질서술구문

(이를 보강하면, 존재/소유구문보다 더 왼쪽에 “Единороги есть. ‘일각수는 있다.’”와 같은 존재론적 구문을, 자질서술구문보다 더 오른쪽에 “Было холодно. ‘추웠다.’”와 같이 시제 표현만을 위해 BE가 조동사로 사용된 구문을 추가할 수 있다.)

### 3.2. ЕСТЬ와 존재성

전형적으로는, есть는 위 표의 첫 번째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주로 제로가 사용된다. (우리말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다”가 사용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있다”가 사용됨을 고려할 때, 중간단계들에서 어떠한 형태가 사용되는가는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러시아어학계에서는 есть와 존재적 의미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Селиверстова 1973, Панде 1981, Kondrashova 1996을 보라). 예컨대, Kondrashova(1996)은 심층에는 BE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적 닫힘(Existential Closure)을 신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есть가 삽입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약한 존재/소유구문은 존재적 닫힘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이 된다. 즉, “У нее красивые глаза. ‘그녀에겐 아름다운 눈이 있다.’”는 “Ее глаза красивые. ‘그녀의 눈은 아름답다.’”와 다르지 않은 셈이 된

다. (실제로, Шатуновский (2000, 195), Kantorczyk (1993, 146) 은 이 두 구문간에 변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두 구문은 “красивые”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후자는 그녀의 눈에 대해 그것이 아름답다는 자질을 갖음을 서술하는 반면, 전자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눈이 있음을 단언한다. 그녀에게 눈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제된 사실로서 정보적 가치를 갖지 못하므로 “어떤” 눈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발언의 존재적 성격 자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면 존재적 단함을 *есть*의 조건으로 보는 Kondrashova(1996)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존재적 단함이 있더라도 “у нее красивые глаза.”에서와 같이 불가분의 소유관계를 통해, 혹은 예문 (8)에서와 같이 맥락이나 상황에 의해 대상 지시체의 상부유형의 존재가 전제될 때에는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

(8) a. Игорь,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е фотоснимки, они у тебя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лучились.

--Да что ты, у меня ведь хороший фотоаппарат.

‘이고리, 훌륭한 사진이야. 아주 잘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나한테 좋은 사진기가 있잖아.’ (Kantorczyk (1993, 160에서 재인용)

b. У вас есть машина? --Да, у меня Лада.

‘당신은 차가 있어요? --네, 제겐 라다가 있어요.’

(8-a)에서는 상황 맥락에 의해 사진기가 있다는 사실은 전제되고 “어떠한” 사진기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을 예문 (9)와 비교해 보라.

(9) Как обидно, я забыл свой фотоаппарат.

--Не волнуйся, у меня есть хороший фотоаппарат. Я сейчас принесу его.

‘어찌지, 내 사진기를 잊고 왔네. --걱정마, 나한테 좋은 사진기가 있어. 내가 곧 가져올게.’ (Kantorczyk 1993, 160에서 재인용)

(9)에서 수식어 “хороший”는 의미를 거의 잃고 일종의 상투어가 되어 “фотоаппарат”에 병합되어진다. 여기서 “хороший”는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다. 발화자의 실질적 화행목표는 사진기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것

임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8-b)의 응답에서는 선행 발화에 의해 이미 존재가 확립된 “машина”를 좀더 상세하게 구체화시켜 “어떠한” 차종이 있는지를 말한다. 즉, 여기서는 명사가 사용되었지만 대상-객체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은 (8-a)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한다. (8-a)에서 “사진기”가 상부유형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8-b)에서는 “자동차”가 상부유형으로 작용한다.

상황 맥락에 의해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데도 일반적으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들의 공통적 특징은 (8-b)에서와 같이 명사가 서술형용사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10) a. У меня радость. ‘내게는 기쁨이 있다.’

b. У него горбик. ‘그는 (등) 혹이 있다.’

(10-a)처럼 추상명사가 사용될 경우 명사의 서술형용사적 기능은 좀더 분명히 드러난다. “기쁨”은 “기쁜 감정”의 줄임말로 볼 수 있으며 (10-a)는 “Я рад. ‘나는 기쁘다.’”에 근접하는 의미를 갖는다. (10-b)에서 “혹”은 “그”를 특징짓는 서술적 기능을 담당한다. (10-b)는 “Он горбат. ‘그는 굽었다.’”에 근접한다. (10-a)에서는 ‘감정’, (10-b)에서는 ‘신체적 특징’이 상부유형으로 작용한다.

계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계사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대상-객체는 그 존재가 전제되며 대부분의 계사적 BE는 *есть*로 나타나지 않는다. “Иван студент. ‘이반은 학생이다.’”에서 이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에 대한 서술이 불가능하다. 계사구문과 약한 존재구문, 그리고 “Холодно! ‘춥네!’”와 같이 대상-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대상-객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가 전제되거나, 적어도 그것의 상부유형의 존재가 전제될 때에는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뒤집어 말하면, (상부유형의 설정 없이) 순수하게 대상-객체의 존재가 단언될 경우에만 *есть*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3.3. ЕСТЬ와 진리성

그러나 위와 같이 보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계사 이면서도 *есть*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Лингвистика *есть* наука. ‘언어학은 학문이다.’”, “Дети *есть* дети.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이 예문들에서는 주어가 총류적 NP로서 그 존재가 원천적으로 전제되어지는데도 *есть*가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를 예외로 볼 것인가, 아니면, 3.2의 잠정적 결론은 버려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고대러시아어의 계사적 *есть*가 보존된 경우로 본다 해도 왜 이 경우들에만 보존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есть*의 기능 문제로 돌아오고 만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의 BE가 가능하다면 그 의미는 순수하게 존재도, 순수하게 연결도 아닌,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도유럽어 BE의 본래적 의미가 존재도, 연결도 아닌 “to be true, to be so”였다는 Kahn(1966)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BE의 핵심적 역할이 논항들 간에 서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단언의 진리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9)</sup> 단언은 명제의 내용과 그것이 진리임을 밝히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객체에 대해 서술하는 경우 객체의 존재는 전제되므로 서술부가 단언의 핵심을 이루고 서술부만이 진리성의 범주에 포함된다: As to X, Y is true. 특별히 진리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술부의 진리성은 디폴트로 전제되고 술부의 내용이 정보전달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때 서술되는 객체는 존재가 전제되므로 그것의 진리성에 대한 회의는 있을 수 없다. As to X, X is true는 잉여적이다. 존재는 그 안에 이미 진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처소에 객체가 존재함만을 단언하는 순수한 존재구문에서는 진리성이 존재성 안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진리성 자체가 단언의 핵심에 들어가게 된다. 진리성이 단언의 핵심에 들어 있으므로 그것은 일반 서술구문에서와는 달리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된다. 러시아어에서는 단언의 진리성에 비중이 주어질 경우 *есть*라는 표층형태가 그 신호로 작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제로라는 경제적 형태가 취해진다. 순수한 존재구문이 *есть*를 갖는 반면, 계사를 갖는 서술구문들이 제로를 갖는

9) BE의 기능에 대한 좀더 면밀한 규명은 필자가 준비중인 논문 “BE에 대하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것은 이러한 논리로 설명 가능하다. 약한 존재구문이나 처소구문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순수한 존재구문보다 높은 서술성을 가지므로 제로가 사용된다. 한편, 계사를 갖는 서술구문이라도 논쟁적 혹은 강조적 맥락에서는 단언의 진리성에 비중이 주어지므로 *есть*가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есть*는 단언의 진리성에 비중이 두어졌음을 신호하는 유표적 형태이다.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 몇 가지 예를 통해 검증해보자.

(11) (a) ?“У меня *есть* уши. ‘나는 귀가 있다.’

(b) У меня *ЕСТЬ* уши. Я не могу не слышать. ‘나는 귀가 있어. 못 들을 수가 없다구.’(대문자는 강세표시)

신체부위가 신체의 소유주에 의해 불가분하게 소유되어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11-a)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문장이다. 그러나 (11-b)에서와 같이 ‘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진리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맥락에서는 *есть*가 사용된다.

(12) a. У меня дети. Я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나는/내겐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는 일해야만 해요.’

b. У меня *есть* дети. Я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나는/내겐 아이들이 있다구요. 나는 일해야만 해요.’ (a, b 모두 Селиверстова(1973, 100)에서 재인용)

(12-a)와 (12-b)간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12-a)에서는 일해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인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 (12-b)에서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표현된다. 즉, (12-a)에서는 “일해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상부유형으로 설정되어 “아이들”이라는 객체 NP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12-b)에서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러한 차이는 제로와 *есть*를 통해 신호된다.

(13) Я сказал что, Иван *умен*, и он и *есть* *умен*. ‘내가 이반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는 정말이지 똑똑해요.’”(Chvany (1975, 254)에서 재인용)

강조 맥락에서 사용된 (13)은 *есть*가 정의구문이 아닌 그 밖의 서술구문에 서도 사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есть*는 단언의 진리성을 환기시키는 역

할을 한다. 단언의 진리성 강조는 *есть*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문장 강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예문에서 “он и *есть* *умен*”은 “он *УМЕН*”으로 대치될 수 있다. (BE의 표층 형태를 통한 진리성 부각이 불가능한 언어에서는 그 기능이 문장 강세나 양상어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 “He IS smart.”나 “그는 정말이지 똑똑해요.”를 보라.) 러시아어에서는 문장 강세가 *есть*에 덧붙여 추가적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예문 11-b를 보라).

*есть*에 대한 위의 주장은 고대러시아어나 북부러시아방언에서 발견되는 ‘과거 맥락의 *есть*’라는 상당히 의외의 구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4) a. *есть* *вернулись* *после* *плена*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북부러시아방언, *Кузьмина и Немченко*(1968, 149에서 재인용)

b. *есть* *били* *и* *грабили* ‘때리고 강도짓을 했다’

(고대러시아어, *Шевелёва* (1993, 129)에서 재인용)

(14)의 예문들이 현대 표준러시아어에서는 각각 “*вернулись после плена*”, “*били и грабили*”에 상응하므로 이때의 *есть*는 단순히 잉여적 소사로(*Кузьмина и Немченко*(1968, 15), 혹은 이전에 존재하던 완료(Perfect)의 조동사가 변형된 잔재로 간주되기도 한다(*Обнорский, Кузьмина и Немченко*(1968, 155)에서 재인용). 그러나 두 번째 설명은 *есть*가 완료로 보기 힘든 경우나 현재시제 동사와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Шевелёва (1993, 128, 151-153)을 보라). *есть*를 단순히 잉여적으로 첨부된 것으로 보는 견해 또한 언어의 경제성 원칙 상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잉여적 소사로 낙착되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아무 동기 없이 *есть*가 첨부되었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 위의 예문들의 *есть*가 적어도 그 기원 상 현재시제 외에도 단언의 진리성이라는 양상의 부각을 위한 신호로 작용한 흔적으로 본다면 어떨까? BE의 진리성 확립이라는 양상적 측면과 시제표현적 측면이 현대 표준어 과거시제에서는 *был*(*-а/-о/-и*)라는 한 형태에 융합되어있는 반면, 고대러시아어나 북부러시아방언에서는 양상은 *есть*로, 시제는 뒤따르는 *был*로 분리되어 표현될 수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필자의 가설이 과연 기왕의 가설들과 비교해 개선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есть*를 존재적 의미와, 제로를 계사적 의미와 연계시키는 가설은 이미 오류로 판명되었다. 그 외에 대표적 가설들로는 화용적 면모를 중시하는 연구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есть*와 제로간의 선택의 문제가 부분과 전체, 사실상의 소유와 일시적 소유, 혹은 소개적 진술과 단순한 묘사 서술간의 대립 등으로 설명된다(Селиверстова 1973, Панде 1985, Isačenko 1974, Чинчлей 1996, Янко 2000 등을 보라).

- (15) a. У него есть седые волосы. ‘그(에게)는 흰머리가 있다.’  
 b. У него седые волосы. ‘그는 흰머리가 있다.(≅ 그는 머리가 희다.)’
- (16) a. У него есть новый плащ. ‘그(에게)는 새 우비가 있다.’  
 b. У него новый плащ. ‘그는 새 우비를 입고 있다.’
- (17) a. Есть у Маши два брата. ‘마샤(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다.’  
 b. У Маши два брата. ‘마샤는 남동생이 둘이다.’

예문 (15)는 *есть*는 대상-객체의 일부를, 제로는 전체를 지칭한다는 주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예이다(Isačenko 1974, Селиверстова 1973을 보라). 자질에 대한 서술은 일반적으로 대상-객체 전체에 대해 그것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할 때 가능하므로 (15-b)에서는 머리 전체가 흰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15-a)에서는 흰 머리카락이 머리카락들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으로서 다른 색깔의 머리카락들도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머리의 일부만이 흰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Селиверстова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부분과 전체간의 대립은 지칭체--“머리카락들”--가 다수의 구성원을 가지며 수식어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뿐 아니라(101면),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자가 직접 상대방의 흰머리를 보고 놀란 경우라면 실제로는 머리 전체가 희지 않더라도 제로로 표현될 수 있다(100면을 보라). 그렇다면 *есть*와 제로간의 대립을 부분성과 관련시킨다 하더라도 부분 대 전체가 아니라 부분 대 비(非)부분의 대립으로 보았어야 옳을 것이다.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한 경우에는 이 둘이 동일한 객관적 상황 안에 들어 있게 되므로 순수한 존재 단언보다는 서술적 측면--좀더 정확히는, 서술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평가나 감정적 색채--에 비중이 주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따라서 단언의 진리성에 관해서는 디폴트인 제로가 자주 사용된다. 예문 (15-b)가 그러한 경우이다. 반면, 본 절의 앞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순수한



존재단언에서는 본질적으로 진리성이 단언의 핵심에 놓이므로 예문 (15-a)에서는 *есть*가 사용되게 된다.

예문 (16)은 *есть*와 제로가 사실상의 소유와 상황에 의한 일시적 소유 (혹은 본질과 현상) 간의 대립을 보인다는 주장에서 인용되는 예이다. (16-a)에서는 “그”가 “새 우비”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반면, (16-b)에서는 단지 발화당시 그가 새 우비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다. 감정(예문 10-a)이나 질병(“у него невроз. ‘그는 노이로제가 있다.’”) 등의 경우 아주 특수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제로가 사용되는 것도 그것들이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Селиверстова (1973, 101)을 보라). 그러나 소유/존재구문은 심층에서 (시공성을 보여주는) 처소 논항을 반드시 갖도록 되어 있다는 2장의 주장을 따른다면 *есть*구문도 진정으로 본질적인, 즉, 시공과 무관한 소유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시공과 무관한 소유표현은 예문 (3), (4)와 같이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나 소유 생격이 쓰여진 경우이다.<sup>10)</sup> 사실상의 소유와 일시적 소유간의 대립은 특정한 맥락, 특정한 지시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다. 비근한 예로, “у него красивые глаза.”는 일시적 소유가 아니지만 *есть*가 불가능함을 보라. (16-b)는 객관적인 존재단언을 통해 진리성을 부각시키는 (16-a)와 달리 화자가 직접 상황과 대면한 경우로서 여기서는 “우비”라는 상부유형의 존재가 전제되어지고 “новы й”라는 서술적 수식어가 부각되므로 진리성 면에서 디폴트인 제로가 사용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예문 10-a)에 대한 설명도 참조하라).

끝으로, 예문 (17)을 보자. (17-a)는 앞으로 “두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 담화 첫머리에서 그들을 소개시키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선행발화로 사용된다. 담화 첫머리에서 앞으로 이야기되어질 존재를 소개하기 위해 그 존재를 단언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존재단언의 사실성은 *есть*로 표출된다. (이야기체 첫 머리 존재구문의 *есть*는 전형적으로 문두에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17-b)는 “Сколько у Маши братьев? ‘마샤는 남자형제가 몇입니까?’”라는 가상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남자형제의 존재는 전제되고 “둘”이라는 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즉, 수사가 서술적으로 사용되면서 그것에 초

10) 시공성과 관련하여,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및 소유 생격과 *есть* 구문의 관계는 존재론적 구문과 존재구문의 관계에 상응한다. “Единороги существует/есть. ‘일각수는 존재한다/있다.’”와 같은 존재론적 구문은 시공성과 무관하게 존재 여부를 단언한다.

점이 주어져 단언의 진리성에 있어 디폴트인 제로가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17-a)에서 수사는 서술적이 아니라 제한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예문 9)를 참조하라). *есть*와 제로가 소개 기능과 묘사 기능간의 대립을 보인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체 담화에 한정되는 기능으로서 *есть*와 제로간의 대립을 극히 부분적으로 설명해줄 뿐이다.

*есть*와 제로가 보이는 부분과 전체, 사실상의 소유와 일시적 소유, 혹은 소개기능과 묘사기능간의 대립은 모두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화자의 결정이 구체적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회화적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에 불과하다. 위의 대립들이 기사로 사용된 *ест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대립에 기초한 가설들의 맹점을 보여준다.

## 4. 다른 소유 표현들과의 비교

### 4.1. HAVE(*иметь*) 구문

소유를 표현하는 주된 방법에 따라 언어는 크게 BE유형과 HAVE유형으로 나뉜다. 예컨대, 러시아어와 우리말은 전자에, 영어는 후자에 속한다. BE언어에서도 HAVE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BE에 비해 사용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어체 면에서 편중성을 보이며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러시아어의 경우, HAVE(*иметь*)는 학술 및 공식적 어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구문 상 BE가 불가능한 경우(“Надо иметь деньги ‘돈을 가져야 한다.’”)나 비생명체에 본질적으로 포함된 대상의 표현(“Сердце имеет два клапана. ‘심장에는 두 개의 심장판이 있다’ / 심장은 두 개의 심장판을 가지고 있다.”)에만 사용되는 등의 제한성을 보인다.

BE에 의한 소유표현은 소유가 근본적으로 존재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이 있다”의 연장선상에 있다. (y 소유구문이 존재구문 위에 y 구가 부가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라.) 한편, HAVE는 “행위주-행위-피의체”의 논항구조를 갖는 행위모델을 빌어 소유를 표현한다. “누가 무엇을 취한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소유

하게 됨"을 추론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취하는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BE와 HAVE는 소유표현 뿐 아니라 존재표현에서도 공존한다. 인도유럽어의 존재표현에는 주로 BE가 사용되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불가리아어 등에서는 HAVE가 사용되기도 한다: "il y a...", "hay", "ima". 위에 인용한 러시아어의 예 "Сердце имеет два клапана."와 같이 HAVE가 비생명체 주어를 가지는 경우도 실은 존재표현으로 볼 수 있다(우리말 번역을 참조하라). 러시아어에서는 иметь에 재귀사인 -ся가 첨부되어 조어된 иметься가 존재표현에서 BE를 대신하기도 한다: "Здесь имеются книги о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여기에는 러시아 역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어체적, 의미적으로도 иметься는 명백히 이차적이다. иметься는 공식적 어체에서만 사용되며 발화시점시 대상으로의 접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쓰일 수 있다(Панде 1988을 보라). 이상을 볼 때, 존재표현에서 HAVE는 BE에 비해 제한적이고 이차적이다.

소유표현이 존재모형을 취하는가, 행위모형을 취하는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그의 의지를 사건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인간이 행위주로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모형을 취하게 되는 반면, 인간 밖의 세계가 인식의 중심에 놓이고 인간은 그 세계의 수용자 혹은 경험주로 인식되는 경우 존재모형을 취하게 된다.<sup>11)</sup>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표현하는 BE와 HAVE는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소유구문의 BE와 HAVE는 둘 다 "소유주-BE/HAVE-피소유물"의 의미구조를 갖으며, 둘 다 중립적 맥락에서는 소유주가 문두에서 담화주제를 표현하고 피소유물은 초점의 위치를 차지한다. HAVE는 행위모형을 취하지만 일반적 행위모델과 달리 (그러나 BE와 유사하게) 피동화가 불가능하며, BE는 일반적 비행위주 관점의 구문들과 달리 (그러나 HAVE구문과 유사하게) 사람(소유주)을 문두의 화제 위치에 놓는다.

많은 언어들에서 HAVE와 BE가 매우 유사한 진화과정을 보이는 점도 이

11) 필자는 존재모델이 행위모델보다 발생적으로 선행하며, 소유와의 문제에서도 존재모델이 행위모델보다 좀더 직접적 관계에 놓인다고 생각한다. 행위모델은 두 논항간의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존재모델보다 추상화된 사고를 요구하며, 행위모델을 통한 소유표현은 추론이라는 복잡한 사고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Heine(1997)은 존재모델이 행위모델보다 선행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들간의 밀접성에 대한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들은 둘 다 소유나 존재표현을 넘어 시제나 양상을 표현하는 조동사나 양상사로까지 발전한다. 러시아어를 예로 들면, BE가 미래시제의 표현(“буду читать ‘나는 읽을 것이다.’”)으로, 혹은 양상사(“Я заплатил было деньги. ‘돈을 지불할 뻔했다.’”)로도 기능하며, HAVE가 (문체적으로 매우 유표적이긴 하나) 양상적 의미를 결들인 미래 표현(“Завтра имеет быть собрание. ‘내일 집회가 있을 것이다/있도록 되어있다.’”)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HAVE언어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예로, 영어에서 be와 have가 둘 다 분사형 앞에서는 조동사로, 부정사와 함께는 양상표현에 사용됨을 참고하라.)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Freeze(1992)는 BE구문과 HAVE구문이 동일한 심층구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구문의 심층에는 문법적 주어 자리가 비어있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PP 내 NP가 상승하면 처소구문, PP 내 (P+NP로 이루어진) P' (즉, LOC) 전체가 상승하면 존재/소유구문이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 세 번째 가능성으로 P' 내 NP만 상승하면 남아있는 P가 Infl에 병합되어 HAVE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HAVE가 BE + P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포르투갈어나 Khalkha어, Luo어 등에서 소유가 “X(소유주) is with Y(피소유물)”의 형태를 취하는 점(Heine 1997, 54)을 고려하면 수긍이 갈만한 가설이긴 하지만 HAVE구문의 주어 NP와 BE구문의 P'가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은 신빙성이 약하다. HAVE의 주어 NP는 주격으로서 HAVE와 문법적 일치를 보이는 등 명실 공히 문법적 주어의 역할을 하는 반면, BE구문에서 주격으로 나타나고 일치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대상 NP이다. 물론, 이때 대상 NP도 어순이나 조정, 결속성 면에서 완벽한 주어가 아니며 이 점에서는 P'가 주어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P'가 이동에 의해 주어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담화주체로서 뒤따르는 문장 위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주어와는 별개의 ([Spec, CP]와 같은) 독립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Spec, IP] 뿐 아니라 [Spec, CP]도 조정, 결속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BE구문과 HAVE구문이 동일한 통사적 심층구조로부터 파생된다는 주장은 BE와 HAVE의 유사성 및 상보성을 고려할 때 매력적 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신빙성이 약한 부분이 남아 있다. 소유를 표현하는 BE구문과 HAVE구문간의 유사성은 통사구조보다는 의미구조의 유사성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통사구조는 이미 그것들이 각기 다른 모델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BE는 존재로부터 소유로, HAVE는 행위로부터 소유로 (그리고 몇몇 언어들에서는 다시 존재로) 확산되는 사고과정을 보여준다.

#### 4.2. 소유 여격

러시아어의 y 구는 많은 언어들에서 여격에 상응한다: “Syn mi studuje v Moskvě. ‘나는(여격) 아들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합니다.’”(체코어, Isačenko 1974, 61에서 인용), “Péter-nek van kar-ja-∅-∅ ‘피터에게는(여격) 팔이 있다.’”(헝가리어, Szabolcsi (1981, 276)에서 인용), “mihi est liber. ‘내게는(여격) 책이 있다.’”(라틴어, Heine (1997, 32)에서 인용) 등을 보라.<sup>12)</sup>

러시아어 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격과 y 구간의 상호대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18) Нам есть что делать. ≙ нас есть что делат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19)=(6) Он испортил мне платье. ≙ Он испортил у меня платье.

‘그는 내(=내게(여격)) 옷을 망쳤다.’

이상의 사실들은 소유를 표현하는 여격과 y 구간에 의미적 공유자질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Jakobson(1936/1971) 식으로 말하자면, 소유 여격과 y 구는 둘 다 묘사되는 상황에 “주변적으로” 관련되는 참여자를 지칭한다.<sup>13)</sup> 그러

12) y 소유구문의 소유주는 우리말에서 “는” 혹은 “에게(는)”에 상응한다. “는”은 화제 혹은 담화주제를 신호하는 조사이다. “에게”의 경우에는 그것이 여격인가, 처소격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 책이 있다.”와 “책상 위에 책이 있다.”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에게”와 “에”는 둘 다 처소격(adessive)이 되 생명성에 따라 다른 형태가 쓰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BE 외의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에게”는 여격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Gerdts and Young(1989)는 “에게”와 “에” 둘 다를 여격으로 간주한다. 다른 한편으로, BE와 함께 나타나는 생명체가 여격을 취하는 언어들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BE와 함께 나타나는 “에게”도 여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이 경우에는 BE가 생명체의 경우에는 여격을, 비생명체의 경우에는 처소격을 취하는 것이 된다. 참고로, 에스토니아어에서는 생명체나 비생명체나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데 Lehiste(1969)는 이를 구분하여 생명체는 여격으로, 비생명체는 처소격으로 간주한다.

13) 처소격과 여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각주 (12)를 보라.

나 두 경우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y* 소유구문에서 *y* 지시체는 상황이 일어나는, 혹은 적어도 상황과 관련된 공간인 반면, 여격 명사구의 지시체는 상황을 수용하거나 경험하거나 적어도 상황과 이해가 관련된, 즉, 상황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여격은 *y*의 경우와 달리 [+방향성]을 갖는다. 상황은 여격 지시체를 향한다. 예문 (19)에서 여격이 사용된 경우에는 옷을 망친 행위가 여격 지시체를 향하고 있고 여격 지시체는 그 행위의 영향을 입는다. 예문 (18)에서도 여격 지시체는 주어진 상태의 영향을 받는 자로 묘사된다. 두 경우 모두 지시체가 영향을 입는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y*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sup>14)</sup>

소유 여격은 소유대명사와도 차이를 보인다. 예문 (19)를 예문 (20)과 비교해 보자.

(20) Он испортил мое платье. ‘그는 내 옷을 망쳤다.’

소유대명사에 의한 소유가 사실상의 소유를 표현하는 것과 달리 여격에 의한 소유는 일시적 소유로 이해된다. (20)은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해당되지만, (19)는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20)에서 영향을 입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옷이며, 소유대명사에 의해 명시되는 나와 옷간의 소유관계는 어떤 맥락에서건 취소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19)에서는 나와 옷간의 소유관계가 추론에 의해 이차적으로 얻어진다. “그는 내게 사과를 주었다.”에서 행위의 수용자인 “나”는 (그 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과 소유주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여격과 소유는 함의관계를 갖지만 “그는 내게 사과를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와 같은 경우도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함의관계는 회화적 추론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다.

언어에 따라서는 여격이 구 차원에서 소유를 표현하기도 한다. 교회슬라브어의 “лице отъцю ми ‘나의 아버지의 얼굴’”(Lunt (1974, 132) 에서 인용), 헝가리어의 “Péter-nek a kar-ja-i-∅ ‘피터(여격)의 팔들’”(Szabolcsi (1981, 265)에서 인용)을 보라. 이 경우 여격은 두 NP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14) “Он отрезал мне руку. ‘그는 내 손을 잘랐다.’”에서와 같이 대상물과 소유주가 불가분의 소유관계에 놓여 있어서 소유주가 행위를 입는 것이 명백한 경우 여격만 가능하고 *y*는 불가능함을 보라. 한편, “Он украл у меня часы. ‘그는 내/내게서 시계를 훔쳤다.’”에서와 같이 *y* 구가 탈격의 의미를 갖을 때에는 여격은 불가능하다.

교회슬라브어의 “другъ ми ‘내(여격) 친구’”는 “мой другъ ‘내(소유대명사) 친구’”와 달리 엄격히 말해서 “내게 친구”를 뜻한다. 소유 여격에서 한 걸음 더 확대된 관련자 여격(Dative Ethicus)은 관계성이 반드시 소유를 함의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смотри же ми зълѡдѣство ихъ ‘저를 보시어(여격) 그자들의 악행을 살피소서’”(교회슬라브어, Lunt (1974, 132)에서 인용)를 보라.

여격은 어느 경우이나 [+방향성]을 갖지만 수용자, 경험주, 소유주, 관련자의 순서로 “영향입음”의 정도는 낮아지고 의미적 개연성 및 부가어적 성격은 높아진다.<sup>15)</sup> 그 과정은 2장에서 y 구의 의미가 구체적 처소로부터 담화적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애초의 공간적 의미가 희석되어 가는 과정과 흥미로운 병행성을 보인다.

y 전치사구: [+처소성]

인접 공간 > 소유되는 전형적 공간 > (담화공간으로서의) 소유주 >  
(담화공간으로서의) 관련자 (이 위계는 2장의 위계를 좀더 정교화시킨 것임)

여격: [+방향성]

수용자 > 경험주 > 소유주 > 관련자

이상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y 구와 여격은 둘 다 소유를 표현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소유는 연상에 의한 의미 확산 과정 중의 어느 한 단계에 해당할 뿐 원천적 의미자질이 아니다. 소유표현에 있어 이 둘이 보이는 미묘한 차이는 [처소성]과 [방향성]이라는 원천적 의미자질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4.3. 소유 생격 및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지금까지 논의한 y 소유구문이나 иметь구문, 여격 소유구문과 달리 소유 생

15) “수용자”란 “Он дал мне яблоко. ‘그는 내게 사과를 주었다.’”에서와 같이 여격의 전형적 의미로서 행위를 수용하는 자를 뜻한다. “경험주”란 “Мне холодно. ‘나는 춥다.’”, “Мне вспомнилась Москва. ‘나는 모스크바가 회상되었다.’”에서와 같이 주어진 상황-상태를 경험하는 자를 뜻한다. 수용자는 외부로부터의 행위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반면, 경험자는 외부적 상황을 받아들이되 감지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능동성을 동반한다.

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에 의한 소유는 명사구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시공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книга Маши” 혹은 “Машина книга”는 마샤가 책의 사실상의 소유주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Сейчас у меня книга Маши. ‘지금 내게 마샤의 책이 있다.’”와 같은 구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상의 소유주와 현재적 소유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차원의 소유표현이 포함되는 구문 자체는 소유관계가 아닌 그 밖의 다른 것을 단언한다.

(21) a. Это книга Маши. /Это Машина книга. ‘이것은 마샤의 책이다.’

b. Дом Маши -- новый. ‘마샤의 집은 새 것이다.’

c. Эта книга -- моя. ‘이 책은 내 것이다.’

예문 (21-a)는 “Чья это книга? ‘이것은 누구의 책인가?’”의 답일 수 있다. 선행하는 물음에 의해 책이 누군가의 것이라는 사실은 전제되고 (21-a)는 그것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체파악의 기능을 한다. (21-a)가 “Что это? ‘이것이 무엇인가?’”의 응답일 경우이더라도 그 “무엇”이 “책”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정체파악의 기능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때 소유 생격 및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는 “책”을 한정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다. (21-b)는 마샤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정보로 전제하고 그 집의 자질에 대해 서술한다. (21-c)의 경우에도 책이 누군가의 것이라는 사실은 전제되며 단언되는 것은 소유주의 정체이다. 즉, 소유 생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를 포함하는 문장은 정체파악이나 자질서술의 기능을 갖는다. 소유주의 정체는 이미 알려진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일 경우에조차도 소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원천적으로 전제되어진다. \**у меня есть мой дом.* \*‘내게는 나의 집이 있다.’”가 (논쟁적 맥락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은 이미 소유가 전제되어진 것에 대해 소유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6)</sup>

16) “Машина книга”가 ‘마샤가 소유하고 있는 책’만을 의미하는데 반해, “книга Маши”는 그것 뿐 아니라 ‘마샤가 쓴 책’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 뿐 아니라 “книга моего брата ‘내 남동생의 책’”과 같이 수식어가 있는 경우는 소유 생격의 소유대명사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его книга ‘그의(소유대명사) 책’”이 “книга его ‘그(인칭대명사)의 책’”으로부터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 (22) a. У меня сгорел дом. 'I have a house burned.' '나는 집이 불탔다.'  
 b. Сгорел мой дом. 'My house (has) burned.' '내 집이 불탔다.'

(22-b)에서 “집”은 “내”라는 소유대명사에 의해 한정된 개체로서 (22-b)는 불탄 것이 “내 집”이라는 한정적 개체임을 서술한다. 반면, (22-a)는 집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구성원이 불탔다는 사실을 “나”라는 담화공간과 연관 시킴으로써 그 집을 “내 집”으로 재해석시킨다. 즉, 담화공간의 제약성이 자동적으로 *у* 지시체와 객체 간에 소유관계를 형성시키고, 이에 따라 “дом”이 갖는 애초의 비한정성은 “*у меня*”에 의해 한정성으로 전환된다.<sup>17)</sup>

예문 (22-a)와 같은 *у* 구문의 경우 비한정적 NP가 추론적으로 소유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이차적으로 한정적 해석을 받게 되는 반면, (22-b)에서 소유 생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는 그것 자체가 NP에 한정사로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22-a)는 명백한 어휘의미를 갖는 비(非)BE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를 단언한다는 점에서는 BE구문과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동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적 상태, 즉, 완료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BE 존재/소유구문에 근접한다. 예문 (7-a)와 같이 현재시제가 사용된 경우에도 행위성은 축소되고 지속적 상태의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행위의 상태화가 일어난다. 행위의 상태화는 상태운용자(Stative Operator, Sop)가 구문을 결속함으로써 일어난다. (22-a)는 DS[*у меня*] + Sop[сгорел дом]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4의 무인칭 피동구문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2장에서 “*у меня в деревне есть дача.*”가 DS[*у меня*] +  $\exists$ op[в деревне BE дача]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점을 상기해 보라. Sop는  $\exists$ op를 포괄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у* 구는 Sop에 의해 결속되는 구문에 부가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점에서 *у* 구문은 소유 생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가 사용된 구문과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소유 생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가 사용된 구

17) “Дом у меня сгорел.”의 어순을 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дом”이 문두로 이동하여 이차적으로 화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다를 뿐이다. 또한, “Мой дом сгорел.”의 경우도 화제-평언구조만 다를 뿐 “мой дом”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는 (22-b)와 다를 바 없다.

문은 Sop에 의해 결속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구 차원에서 (소유라는) 관계 밝힘을 통해 NP를 한정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y 소유구문의 구조를 존재구문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나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견해는 모두 문제점을 갖는다. y 소유구문의 y 구는 구체적 처소를 함축하는 존재구문 위에 부가되는 추상적 처소, 즉, 담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есть와 제로의 대립을 존재적 단힘 여부나 부분과 전체간의 대립 혹은 사실상의 소유와 일시적 소유간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 등은 부분적 설명만 제공해 준다. 필자의 견해로는 есть는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즉, 순수한 존재단언이나 논쟁적 혹은 강조적 맥락의 경우-- 사용되며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는 디폴트 형태인 제로가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좀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3. y 소유구문은 (1)존재모델에 의거하되 (2) y 구를 담화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3)소유를 단언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유표현들과 차별화된다. y 구문은 (1)에 의해 행위모델을 이용해 소유적 해석을 추론에 의거해 도출시키는 HAVE구문과 차별화되고, (2)에 의해 [+방향성]을 갖는 소유 여격구문과 차별화되며, (3)에 의해 소유관계의 존재를 전제하는 소유 생격 및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동반 구문과 차별화된다.

## 참 고 문 헌

## 1. 러시아어

- Кузьмина, И. Б. и Е. В. Немченко(1968) "К вопросу об употреблении *есть* в русских говорах,"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общеславянскому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у атласу*, Москва: Наука.
- Панде, Хем Чандра(1981) "К семантике *есть* в локативных и посессивных конструкциях," *Russian Linguistics* 5, 291-299.
- Панде, Хем Чандра(1988) "Заметки по семантике глагола *иметься*," *Russian Linguistics* 12, 129-132.
- Селиверстова, О. Н.(1973) "Семан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редикативных притяжатель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с глаголом *быть*,"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no. 5, 95-105
- Чинчлей, К. Г.(1996) "Поле посессивности и посессивные ситуации," *Категории бытия и обладания в языке*, Москва: Наука.
- Шатуновский, И. Б.(2000) "Предложения наличия vs. бытийные и локати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Языки пространств*, Москва: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Шевелёва, М. Н.(1993) "Аномальные 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ие формы с глаголом *быти* и их диалектные соответств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славянскому историческому языкознанию: Памяти профессора Г. А. Хабургаева*, Москва: Изд.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Яacobсон, Роман(1958/1971)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над славянским склонением," *Selected Writings II*, The Hague: Mouton.
- Янко, Т. Е.(2000) "Бытование и обладание конструкции с глаголом *быть*,"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Языки пространств*, Москва: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2. 영어 및 서구어

- Bach, Emmon(1967) "*Have* and *Be* in English Syntax," *Language* 43:2, 462-485.
- Christie, J. J.(1970) "Locative, Possessive, and Existential in Swahili," *Foundations of Language* 6, 166-177.
- Chvany, Catherine V.(1975) *On the Syntax of BE-Sentences in Russian*, Cambridge, Mass.: Slavica Publishers, Inc.

- Cienki, Alan(1995) "The Semantics of Possessive and Spatial Constructions in Russian and Bulgarian: A Comparative Analysis in Cognitive Grammar,"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39:1, 73-114.
- Clancy, Steven J.(2001) *The Chain of BEING and HAVING in Slavic*, Manuscript.
- Clark, Eve V.(1978) "Locational: Existential, Locative, and Possessive Constructions," in Joseph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Evreinov, Irina A.(1973) "Die Semantik einer Nullform: Versuch einer neuen Definition der Kopula im Russischen," *Linguistics* 98, 41-57.
- Freeze, Ray(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3, 552-595.
- Gerdts, Donna B. and Cheong Young(1989) "Non-Nominative Subject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Heine, Bernd(1997) *Poss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ačenko, Alexander V.(1974) "On *Have* and *Be* Languages: A Typological Sketch," in Michael Flier, ed. *Slavic Forum: Essays in Linguistics and Literature*, The Hague: Mouton.
- Jakobson, Roman(1936/1971) "Beitrag zur allgemeinen Kasuslehre: Gesamtbedeutung der russischen Kasus," in *Selected Writings*, Vol. II, The Hague: Mouton.
- Kahn, Charles H.(1966) "The Greek Verb 'to BE' and the Concept of Being," *Foundations of Language* 2, 245-265.
- Kantorczyk, Ursula(1993) *Der Satztyp V gorode (est') universitet / U Igorja (est') mašina in der russischen Sprache der Gegenwart*, München: Verlag Otto Sagner.
- Kondrashova, Natalia Yurievna(1996) *The Syntax of Existential Quantification*, Ph.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angacker, Ronald W.(1995) "Possess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s," in John R. Taylor and Robert E. Maclaury, 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Berlin: Mouton de Gruyter.
- Lehiste, Ilse(1969) "'Being' and 'Having' in Estonian," *Foundations of Language* 5, 324-341.

- Lunt, Horace G.(1974) *Old Church Slavonic Grammar*, The Hague: Mouton.
- Lyons, John(1967) "A Note on Possessive, Existential and Locative Sentences," *Foundations of Language* 3, 390-396.
- Seiler, Hansjakob(1982) *Possession as an Operational Dimension of Language*,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Szabolcsi, Anna(1981) "The Possessive Construction in Hungarian: A Configurational Category in a Non-Configurational Language," *Acta Linguistic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Tomus 31:1-4, 261-289.
- Taylor, John R.(1996) *Possessives in English: An Exploration in Cognitive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 Voeikova, Maria D.(2000) *Russian Existential Sentences: A Functional Approach*, Muenchen: Lincom Europa.

**Abstract****'y' Possessive Construction in Russian**

Lee, In-Young

The structure of possessive construction has been considered either as same as that of existential construction or as totally different from it. In this paper, PP with 'y' in Russian possessive construction is considered as discourse space, in relation to which existential clause contained in possessive construction is interpreted. PP with 'y' as discourse space represents an abstract location in contrast to a concrete location involved in existential construction. Animate discourse space is interpreted as possessor of an object existing in some concrete location.

As for the selection between 'есть' and zero in 'y' possessive construction, there have been hypotheses based on the existence of existential closure, or on the opposition of part vs. whole, or factual vs. temporary possession, etc., which provide only partial explanations for the phenomenon. This paper offers a more general explanation: 'есть' is used when the speaker has an intention to focus on the truth-value of the assertion. For example, it is used in pure existential sentences or in polemical and/or emphatic contexts. Otherwise, zero is used as default.

'y' possessive construction has a distinctive status among possessive expressions. (1) It is based on Existential Model and in this sense, it is distinguished from HAVE(='иметь') possessive construction, which makes use of Action Model. (2) PP with 'y' as abstract location is different from Possessive Dativ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ffected being due to its feature [+Directed]. (3) 'y' possessive construction asserts the possessive relationship, in distinction from the construction with Possessive Genitive/Possessive Pronoun/Possessive Adjective, which presuppose (and do not assert) the existence of possessive relationship.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 2003. 3. 02  
논문심사: 2003. 3. 16 ~ 4. 10  
심사완료: 2003. 4. 20

필자약력(이인영)

소 속: 서울대학교 교수  
출 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전 공: 러시아어학  
대표논문: 「주격에 대하여」(러시아연구, 2002)  
대표저작: 『러시아어학』(서울대출판부, 1997)